2022년 / 8월 2주차

연구원 소식

2022년 회원의 날 안내

연구원이 문을 연지도 어느덧 16년이 되었습니다. 2019년 8월 31일과 9월 1일 이틀에 걸쳐 전주 전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개원 13주년 기념식 및 회원의 날 이후 멈췄던 개원 기념식이 코로나 광풍을 뚫고 3년만에 다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일수로 계산해보니 1092일 만입니다. 감염병으로 인해 전 지구적 재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회원의 날 즈음에는 모든 상황이 종료되길 비는 마음을 모아 준비중입니다. 우선 날짜와 장소를 알려드리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다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 **날짜 : 2022년 08월 27일(토) 15시 ~ 28일(일) 11시**
- **장소 : 고창 베리팜 힐링파크(고창군 부안면 용산리 610번지)**
- **대상 : 한국고전문화연구원 회원 및 동반자**

전주 기자촌 지역 과거 사진, 문서 자료 구합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오는 6월 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기자촌지역 재개발에 따른 마을기록화 사업이 현장 인터뷰를 비롯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을기록화 사업 보고서에 삽입될 기자촌 지역과 관련한 근현대 자료를 구합니다.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시거나 자료 소장자를 알고 계시는 회원께서는 해체되는 마을이 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을 위해 자료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해드립니다.

■ 역사 속의 오늘

용금호의 갈림길 – 1973. 08. 08

유신헌법 공포 뒤 귀국하지 않고 반유신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은 1973년 8월 도쿄에서 반 유신 집회를 앞두고 있던 중, 중앙정보부 요원을 필두로 한 일단의 괴한들에게 납치당한다.

괴한들은 마취약으로 의식을 잃게 한 뒤 오사카(또는 고베)로 이동, 모터보트에 그를 태워 먼 바다에 대기 중이던 536톤급 '용금호'에 인계했다. 배에 있던 자들은 김대중의 손발을 묶고 판자 위에 눕혀 "송장 염하듯" 다시 판자와 묶었고, 두 손목에는 30~40kg 무게의 돌인지 쇳덩이인지를 달았다. 그들은 그를 수장시키려 했다.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대여섯 명의 대화 중에 '상어'라는 말도 들렸다고 훗날 김대중은 회고했다.

'바닷속이니 몇 분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어떤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된 것 아닌가.' 그러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아니다. 살고 싶다. 살아야 한다. 아직 할 일이 너무 많다. 상어에게 하반신을 뜯어 먹혀도 상반신만이라도 살고 싶다.'(김대중 자서전, 상권 313쪽)

그는 두 해 전인 71년 대통령 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해 민주공화당 후보였던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오금을 저리게 했고, 이듬해 10월 박정희는 "민족사의 진운을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중대한 결심" 곧 '10월 유신'을 선포했다. 국회 해산과 계엄령, 그리고 헌법 개정. 그는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하고, 의원 1/3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연임 제한을 철폐하고, 그 헌법의 효력마저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자신에게 부여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발하는 정치인들을 잇달아 연행해 구금하고 고문했다.

졸지에 망명객이 된 그는 나라 바깥에서 외신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유신 쿠데타'의 정체를 폭로했다. 그 결실로 73년 7월 6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민주화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가 출범했다. 그는 일본 지부도 창립하려고 했다.

그의 납치-살해 음모는, 첩보를 입수한 미 CIA와 일본 해상보안청의 개입으로 실패했고, '구국동맹행동대'소속이라고 신분을 밝힌 괴한들은 납치 129시간 만인 13일 밤 그를 동교동 자택 앞에 떨구고 사라졌다.

"밤은 깊었다. 대문 앞에 서서 문패를 올려다봤다. '김대중 이희호.' 문패가 물끄러미 나를 내려다보았다. 골목 안은 조용했다. 집안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다. 대한민국, 한여름 밤. 나는 초인종을 눌렀다. 막 퇴근한 가장처럼."(자서전 317쪽)

이후 이 사건을 조사한 일본 경찰은 주일 한국 대사관 직원이 납치 사건에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주일 한국대사관 김동운 일등서기관으로 밝혀지자, 출두를 요구했으나 한국정부는 거부했다. 이후 사건은 한국 공권력에 의한 일본 주권침해라는 한・일 양국의 외교문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조정 및 한・일 간의 막후 절충으로 김동운 해임,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활동에 대한 면책, 김종필 당시 국무총리의 진사방일(陳謝訪日) 등이 합의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이후 김대중은 가택연금과 동시에 유신정권 내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다. 유신체제 10개월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은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벌이던 자신의 정적을 암살하려는 음모로 드러나 국내・외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만일 김대중이 1973년 용금호에서 바다에 던져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면 유신체제가 어디까지 이어졌을 지 장담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유신체제에서 김대중이 살해당했다면 1980년 '광주항쟁'도 어떻게 전개되었을지 모를 일이고, 1980년 '광주항쟁'이 없었다면 87년 6월 항쟁이 가능했을까하는 의문도 든다.

1973년 8월 용금호에서 한 사람이 겪은 생사의 갈림길은 20세기와 21세기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가늠할 수 없는 길이었다.